

봉고 차를 탄 사람들

(의료 사고 2)

I. 심장병을 앓는 정신과 환자

큰 의료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의사라면 그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병원엔 크건 작건 간에 어디에서나 사고가 난다. 대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갑작스레 발생하는 사고들이다.

필자는 그래도 비교적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지금까지 창졸간에 당한 의료 사고는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것도 언제까지나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에피소드 같은” 사고는 있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마침 한 동료 의사가 전근을 가게 되어 몇 명의 환자를 더 맡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보통 주치의가 바뀌게 되면 새로 담당하는 의사에게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인계하는 절차가 있게 마련이다.

전임 의사는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었다. 잘 낫지 않는 기분 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는 그는 벌써 그 병으로 세 번째 입원 중이었는데,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간호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무던하게도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환자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한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제한적이어서 그랬던지 역시나 환자는 매우 들떠 있고 쉽게 흥분을 하며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어차피 대학 병원을 가 봐야 환자의 협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 질환에 대한 자세한 검사나 치료는 엄두를 낼 수 없다고, 그저 죽어도 좋으니 제발 퇴원만은 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찾아오지를 앓고 있습니다”라며 전임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쨌거나 그 환자는 이제 필자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병동의 간호사들은 제발 그 환자

를 되원 조치시켜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온순한 듯하다가도 특하면 간호사들에게는 “야, 야!”하는 반말로 대하기 일쑤였고 다소간에 기분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이 년, 저 년”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심한 행동장애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환자는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안하무인격으로 반말 짓거리를 하였다. 한 번은 나이 많은 노인 환자에게 “이 놈 저 놈”하다가 보다 못 한 다른 환자가 두들겨 패는 바람에 눈 주위가 찢어지기도 했다 한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환자가 갑자기 속 차린 사람처럼 “간호사님!”하고 경어를 쓰면서 담당 간호사를 찾았다. 그러나 그를 찾아간 간호사를 향해 그는 갑작스레 아랫도리를 훌렁 벗어젖히며 지극히 난잡한 성적 행동으로 난리를 피웠다.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몹시 난처했다. 원무과에 일단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보호자를 내원토록 조치하였지만 수 십 번 전화를 하여도 보호자라고는 병원 주위에 얼씬 조차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와 심장병에 관한 문제를 수차례 이야기했으니, 기왕 기다리는 것 조금 더 기다려 보시지요.”

필자의 다텔에 원무과장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보호자는 주치의와의 통화마저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그러기를 한 두어 달 지난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그가 침대에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II.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이 발각 뒤집혔다. 우선 제일 의심되는 사인이 심장마비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워낙 행동거지가 좋지 않았던 환자인지라 혹시 다른 환자가 밤에 몰래 구타를 하거나 앓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가 어려웠다.

그 환자의 편안한 얼굴 표정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 같다. 싸운 흔적이나 외상도 전혀 없었고 이부자리가 흐트러지거나 어지러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을 누구라도 알 듯했다. 환자가 사망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즉시 보호자를 부르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보호자들은 수시로 걸려오는 병원의 전화를 피하려고 하였던지 좀체

연결하기가 어려웠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대여섯 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가족들이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이미 시신에 시반(屍班)이 나타난 때였다.

그토록 나타나지 않던 보호자들이 이번에는 봉고 차를 타고 열댓명 이상씩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리고 보니 그 보호자들은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다 모였고, 심지어 말하는 모양새를 보아서 서로 잘 알지 못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은 다짜고짜 "왜 사람을 때려 죽였나?"며 책상을 엮고 곧장 사람을 칠 기세로 달려들었다. 험악한 긴장감이 돌았다. 그 중 어떤 이는 등이며 허벅지의 아래쪽에 생긴 시반(屍班)을 보고는 "얼마나 됐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멍이 들었느냐?"며 펄펄 날뛰었다. 사람이 죽은 후 두 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반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건 엄두조차 못 낼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난동을 잠잠하게 만든 것은 진화를 했던 기록들이었다. 20여 건이 넘는 그 기록에는 심장에 관한 이야기며, 죽을 수 있다는 경고하며, 죽어도 좋으니 퇴원은 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던 보호자의 이야기들이 빼곡히 씌어져 있었다.

그들은 화장실 뒤에 모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의논했다. 그리고는 내일 다시 오겠노라며 예의 그 봉고 차를 타고 행하니 떠나갔다.

그 날 이후로 그들은 주치의를 만나려고 는 하지도 않았다. 다만 병원의 경영자와 만나서 무언가 담판을 보겠다며 하며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하였다. 억대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장이 나뻐다는 것을 알겠으나 그럼에도 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패서 죽었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사망한 그 환자는 인근의 대학 부속 병원에서 부검(剖檢)에 들어갔다. 역시나 그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고 차'를 타고 씩씩거리며 나타났다.

두개골을 가르는 전기톱 소리가 묘한 여운을 주었다. 한 많은 생을 살다 간 그 환자는 보호자들의 등쌀에 못 이겨 그 육신이 날날이 저미어져 유리병 속에 담겨졌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기관이 깨끗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혹여 다른 환자와 툭탁거리다 내장 기관에 상처가 나 있었다 하더라도 잘 못하면 옴팍 그 바가지를 뒤집어쓸 판이었는데 고맙게도 그의 장기는 깨끗했다.

부검의 손놀림이 시신의 깊은 폐부로 들어갈수록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의 사인은 결국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심장의 좌측 1/3가량이 이미 괴사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그것은 그 후 장기 표본 검사를 의뢰한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검

증되었다. 급성 심근 경색, 이것이 그의 사인이었다.

보호자들은 또 한 쪽으로 모여들었다. 누군가가 "그럼 이거 뭐야, 아무 것도 아니잖아"라며 푸념하는 소리도 들렸다. 자기들 중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보호자들이 "장례비라도 달라"며 병원 측에 또다시 돈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후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